



권두언

## 보다 활기 넘치는 속기협회 되기를 ...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낱알이 익어가듯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땀방울을 아끼지 않으신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제가 처음 速記를 알게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회의장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속기인들은 늘 남다른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임무에 전념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늘 '나도 速記人的 한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였습니다.

얼마 전 저는 신문에서 記錄과 관련된 두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나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통치사료가 제대로 정리·기록되지 않아 역사기록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미국의 화이트워터 사건 해결에 있어 결정적인 단서가 될 비밀대화록 테이프가 제출되어 그 동안의 사건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 人類史가 시작된 이래 인간은 '言語'라는 수단을 빌려 자기의 감정과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말'의 결점을 보완하고자 '文字'를 발명하게 되었고, 이 때부터 인간의 역사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점차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記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오

늘날 기록을 소중히 여겨온 나라가 선진대열에 나서서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것에서도 입증된다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앞둔 오늘날에 와서도 기록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수단에 있어 옛날과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좀더 빠른 정보를 요구하는 요즘의 시대에서도 우리 속기인들은 그야말로 역사의 산 證人으로서 역사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여 살아 있는 역사를 기록하는 점에 있어서는 전과 다름이 없다 하겠습니다.

지난 봄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한 우리 協會는 6월 무주세미나에서 다시 한번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처럼 우리 협회가 중심이 되어 원로·선배 회원들은 지혜와 경륜을, 젊은 후배 회원들은 패기와 열의를 서로 보태준다면 그 어느 것도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보다 활기넘치는 速記界를 만들어 나갑시다. 아울러 회원 스스로 각자가 처한 현실에서 좀더 분발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인으로서 記錄報國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끝으로 지난 6월 우리 협회 소식지가 창간을 한데 이어서 이번에 제2호를 發刊하게 됩니다만, 그동안 평소 맡고 있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소식지에 기고를 해주신 회원들과 편집·교정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회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을에 회원 여러분의 성장과 알찬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회장 權龍太

무주세미나 인사말

# 史草를 기록하는 전문일꾼들의 和合의 장 되기를



**약 력**  
국회의원(자민련)  
광주일보·한양대(후)  
연세대 행정대학원 수료  
청호컴퓨터 회장  
평통지문회의 상임위원

대한속기협회 회장 池大燮입니다.  
회원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대한속기협회 학술세미나가 3회째가 됩니다.  
지난 2월 제가 회장직을 맡고부터 첫번째로 갖는 세미나에 전국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회장직을 맡기 전까지는 속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속기할 줄도 모르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다 해도 열심히 쓰다가 나중에 보면 내가 썼는데도 도저히 해독이 안 되고 해서 "나는 속기와는 인연이 없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5대 국회들어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햇벌이 쪼이지 않는 음지에서 묵묵히, 정말 국가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일에 열중하시는 여러분을 보고 은근히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고마운 분들에게 꼭 보답을 하겠다"고 생각하던 차체에 협회의 임원들로부터 "회장자리가 비어 있는데 맡아주시지 않겠느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능력도 부족하고 속기에 대해서는 지식도 없고 하여 서너번 사양했습니다마는, 실은 그런 제안을 받고 처음부터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기가 2년이라니까 언제까지 회장을 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우리 속기의 學術的·技術的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우애·단합 이런 것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구천동' 하면 아주 깊은 오지입니다. 그러나 대자연의 숨결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은 깊은 산중에 이런 좋은 시설 속에서 강사님들을 모시고, 또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모여든 우리 속기전문 동호인들이 서로 정담을 나누는 이런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갖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자축할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자축합시다.

취임한지 일천해서 크게 보고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장래문제와 복지 및 친목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간단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이틀간에 걸친 세미나 일정에서의 가치부여를 저는 "우리들끼리 만나서 그저 친목을 도모한다는 데에 그칠 게 아니라 보다 더 큰 포부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생활, 그리고 역사의 史草가 되는, 기록을 창조해내는 그러한 자긍심을 갖는 전문 일꾼들이 큰 일을 하기 위해 모였다"는 데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양일간에 걸쳐 여러분들의 속기문화와 속기기술의 향상에 관해 중요한 강연이 세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속기의 학술적 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게 강의도 듣고 토론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가 뭐래도 식사 이후에 우리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아무리 피곤하시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화합합시다.

감사합니다.

1997. 6. 14

회 장 池 大 燮

협회 동정

# 제3회 속기 학술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지난 6월 14~15일 이틀에 걸쳐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대한속기협회 주최 제3회 속기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제주도를 비롯,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임원 및 27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점동 이사의 개회사와 함께 우렁찬 박수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지대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속기사들이 음지에서 국가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을 보고 은근히 연민의 정을 느꼈다"고 속기사들을 위로한 후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속기의 학술적·기술적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우호·단합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대섭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임원 소개가 있는 후 제주도 회원으로 시작, 이번 행사를 중추적으로 수행하게 된 국회 회원을 끝으로 각자의 소개가 있을 때마다 서로 힘찬 박수로써 환영의 마음을 나타냈다.

## 제1주제 : 지방의회 운영과 변화를 이용하는 지혜

임원 및 회원 소개가 끝난 후 제일 먼저 이번 세미나의 제1주제 발표자인 국회 의정연수원 서우선 연수부장의 "지방의회 운영과 변화를 이용하는 지혜"라는 제목의 강의가 있었다. 서부장은 강의를 통해 '지방의회의 운영요체'를 회의체의 특성에서 살펴보면서 "회의체의 특성은 그 규정이 완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율적인 회의규칙에 맡겨야 지방의회의 운영에 자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후 지방의회 운영의 전제조건으로는 지방의 실정, 정부의 방



▲27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제3회 무주속기학술세미나 전경

향, 그리고 국회의 경험을 꼽으면서 회원들 각자에게 '변화를 이용하는 지혜 습득'을 역설하였다. 모든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속에 제1주제 발표가 끝난 후 참석자 전원은 각자 숙소를 배정받고 '회원단합과 단결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다시 모였다.

모두들 하늘색 티셔츠로 갈아 입고서 '만남'이란 노래로 시작한 저녁 단합의 시간에서는 각 도의 대표들이 춤솜씨와 노래솜씨를 마음껏 뽐냈으며 출연자들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주어지기도 했다.

## 제2주제 : CAS 속기와 스피드워드의 현황 및 발전방향

세미나 2일차인 15일엔 국회사무처 속기1과 1담당 사무관으로 재직 중인 염덕훈 이사의 'CAS속기와 스피드워드의 현황 및 발전방향'이라는 제2주제 발표가 있었다.

주요 강의 내용은 우리들이 늘 하고 있는 속기라는 업무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위치, 위상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주장과 함

께 속기의 개념 및 이상적 속기환경의 조건, 그리고 외국속기계의 발전과정, 그 다음에 우리 나라 속기계의 발전 과정, CAS와 스피드워드의 현황과 발전 방향, 우리 나라 속기계의 발전 방향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 제3주제 : 지방의회의 속기사무와 개선방안

염덕훈 이사의 주제발표가 있는 다음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도의회 속기사로 재직중인 송효권 회원의 '지방의회의 속기사무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지방의회 속기사들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바람이 무엇이고, 공동으로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아울러 그것이 머지않은 장래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시작된 이 강의에서 송효권 이사는 지방의회 출범자료 및 현황, 지방의회 속기사무 관련규정, 지방의회 속기사무 실태, 지방의회 속기사무

협회 동정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들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해 총력 매진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 후 모든 회원이 협회를 구심점으로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힘있는 단체를 만들어 우리가 원하는 바 모든 것을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 나가자"고 피력했다.

이상 세 가지 주제발표를 모두 마친 후 국회 속기과에 재직중인 강지유 회원의 선창으로 참석자 전원의 '속기사의 신조' 복창이 있었고, 이어 성천영 이사의 인사말과 지대섭 회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이번 제3회 속기학술세미나의 막이 내려졌다.



▲무주리조트 푸른 초원 폴러스키 풀밭에서 친목을 다지며 찍은 전국 속기인들의 기념사진

제173차 이사회, (주)경영소프트의 단체회원 가입을 의결

7월 4일 오전 11시 여의도 오성빌딩 무지개회관에서 신세화 부회장과 성천영

이사장 및 여러 이사들을 비롯하여 감사, 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73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각 부별 사업진행상황 보고에서 총무 이사로부터 제3회 속기학술세미나에 대한 결과보고와 함께 보고사항으로서 6월 16일 자격심사위원회가 (주)경영소프트

에 대한 단체회원 심사결과 자격이 있음을 통보받은 참석자들은 이어 연구위원회로부터 7월 1일부터 실시된 CAS교육 내용과 연구위원으로 이주성·홍기표·손숙자·이동준·최윤정·이봉선 회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받았다.

그 밖에 각 부별로 현재 진행상황이 보고되었고, 아울러 '단체 회원가입의 건'이 상정되어 총무이사가 대신하여 정관 제7조(회원자격)에 의해 (주)경영소프트가 단체회원으로서 적격 판정되었음을 보고함에 따라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동사가 만장일치로 단체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선포했다.

알고잡시다

'내노라' (x)와 '내로라' (o)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다 모였군!」(x)

「내로라 하는 사람들은 다 모였군!」(o)

이 '내로라'는 '내'라는 대명사에 '이로라'란 조사가 붙어서 된 말이다. 남의 몸가짐이나 하는 짓이 스스로를 쳐들어 뽐내는 모습을 두고 이를 때 '이로라'라는 서술격 조사를 사용한다. 모음 밑에 서는 '이'가 생략되기도 한다.

(예)

- 제 판에는 그래도 사장이로라 하고 행세를 하지만.
- 내로라 하고 거들먹거리는 꼴이 눈꼴사나워 못 봐주겠다.
- 제법 어른이로라 하고 뽐낸다.

반면 '노라'는 자기의 동작을 나타낼 때의 종결어미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의 경우와 같이 동사의 어간에 붙어 쓰이는 말이다.

한국속기50년사 편찬위원회, 1·2차 집필자회의 개최

한국속기 50년사 편찬위원회는 7월 21일과 8월 4일 양일에 걸쳐 국회에서 제1·2차 집필자회의를 가졌다.

7월 21일 신세화 부회장(편찬위원)주재로 가진 1차 집필자회의에서는 자료 수집 정리 및 원고작성 지침이 정해졌고, 8월 4일 권용태 부회장(편찬위원장)주재로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편찬위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원고매수, 집필방

협회 동정

향, 원고마감일 준수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확정지었다.

집필진은 간찬기·김선옥·김점동·김치원·박정호·손재옥·염덕훈·유순태·장미경·한동춘·홍기표·홍순관(가나다 順)등 12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8월 25일에는 김진기 고문과 신세화 부회장을 비롯, 전해성 자문위원, 김기영 이사, 황인하 감사 등 편찬위원 및 한동춘 이사, 박정호 이사, 손재옥 이사, 유순태 회원, 홍기표 회원, 간찬기 회원, 장미경 회원 등 집필진이 협회 고문인 정원도 회원 자택(강서구 등촌동)을 방문, '한국속기 50년사 편찬사업'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당시 현장에서 일어났던 생생한 속기관련 증언을 청취했다.

지대섭 회장, 벨기에에서 개최된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 참석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가 1997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 벨기에 리에즈에서 열렸다. 협회에서는 지대섭 회장을 비롯, 권용

태 부회장, 염덕훈 국제이사, 조영기 회원이 참가하여 세계 각국의 새로운 속기술 발달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특히 기계속기의 세계적인 흐름을 중점적으로 돌아보는 한편 참가국 속기인들과 국제적인 친목을 도모했다.

한편 인터스테노 본부는 98년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스위스 로잔느에서 제42회 인터스테노 총회가 열릴 예정임을 협회 국제부에 알려왔다.

지방의회 속기사 대상교육 실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아 전문 속기행정인 양성의 일환으로 '97 속기행정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출강해 줄 것을 협회에 협조요청해 오며 따라 본 협회에서는 국회사무처의 홍순관(속기2과장), 손재옥(속기사무관), 이주성(속기사무관), 김창진(속기사무관) 등 4명의 회원이 출강하였다.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수원에서 100여명의 지방속기사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교육에서 홍순관 회원은 속기

사의 사명과 과제·회의록 작성 관련법규·교정 실무, 이주성 사무관은 회의록 작성실무사례 연구, 김창진 사무관은 회의록 작성 전산작업 기준실무·회의록 관련 행정실무, 손재옥 회원은 의회용어해설·원고의 편집·교정실무 등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실무 전반에 대해서 각각 열강했다.

연구위원회, 기계속기 교육 및 빠른손위드속기의 약자·약법 연구중

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진)에서는 수필속기사들이 기계속기의 한 부분인 CAS와 빠른손위드속기에 대한 원리와 법식을 습득함으로써 실무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연구, 업무능률을 높이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희망자에 한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위원회는 국회 수필속기사 10여명을 대상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하루 1시간 반씩 국회의정연수원에서 CAS 기계속기교육을 실시했으며, 빠른손위드속기의 약자와 약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CAS속기와 빠른손위드속기

☞ CAS속기 : CAS속기는 Computer Aided Stenomachine의 약자로 컴퓨터의 자동변문프로그램과 속기기계를 이용하여 속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속기기계를 컴퓨터와 연결하여 치면 컴퓨터의 속기프로그램이 한글로 자동변환시켜 주는 방식을 말한다. CAS속기계의 특징은 양손의 손목과 손가락의 형태를 원래대로 유지시키면서 칠 수 있게 키보드 양쪽키의 각도를 25° 정도로 벌어지게 만들었으며 키의 배열은 각 글자의 빈도수와, 조합해서 약자를 만들 때의 편리성·학습성의 제고에 바탕을 두어 배치하였다. 또한 키는 지렛대원리를 이용한 바(BAR)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부드럽게 쳐지며, 소리가 나지 않아 회의를 방해하지 않는다. 또 부드러운 키는 오랜 작업에도 손목과 손끝에 충격을 주지 않는다.

☞ 빠른손위드속기 : 빠른손위드속기는 PC 또는 노트북에 S/W만 깔고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자판교육이 필요없으며, 자기만이 필요한 약법·약어를 자유로이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통신에플레이트 기능이 있어서 2인 이상이 나누어 칠 수도 있고 즉시 자동연결이 된다.

또한 일부 자동떠어쓰기 외에도 입력과 동시에 떠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편집·교정작업에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윈도우용 빠른손위드속기가 개발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윈도우용 워드프로세서에서 곧바로 빠른손위드속기를 수행할 수 있게 한 최첨단 속기프로그램이다.



# 제2회 협회세미나 설문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대한속기협회는 지난 6월 14~15일 양일간 무주에서 있었던 제2회 대한속기협회세미나에서 속기인들의 애로점이나 속기협회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총 270여명의 참석회원들 중 59명이 응답한 설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

## 속기협회에 건의하고 싶었습니다

협회세미나에 관련해서 세미나를 주중에 개최하고 1년에 한번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고, 세미나 장소는 교통편이 편리한 곳을 택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세미나 강의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실무와 관련있는 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는 서울에서 출발하는 버스나 숙소배정, 그리고 레크레이션 등에서 국회와 기타의회 또는 각 지방간의 분리로 인해 다른 의회속기사와 서로 친숙해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다.

속기계·소식지와 관련해서는, 특히 소식지 발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만 발간 후에 지방의회에 잘 전달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다.

업무상 필요한 용어집이나 사례집·편람집 등의 자료를 만들어 지방의회에 보내달라는 의견들이 많아 속기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통일된 기본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의견으로는 국회속기사 위주의 협회운영개선, 국회속기사와 지방의회속기사와의 유대를 강화하자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 평소의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 또는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속기사가 단순직·기능적이라는 인식에 대한 개선노력과 의회속기사의 일반직화를 위한 직급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이어 의회속기사의 속기업무 이외의 타업무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많았다.

또한 컴퓨터속기에 대한 내용도 상당수 있었는데 일부 응답자 중에는 컴퓨터속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컴퓨터속기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들도 다수 있었다.

한편 수필속기와 컴퓨터속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 '만남'이란 노래로 시작한 무주세미나 단합의 시간 장면

궁금해 하는 내용들도 있어서 회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의견으로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대한 통일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회의록의 교정과 편집에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밖에 국회회의록을 지방의회에서 참조하도록 보내달라는 의견과 속기업무와 관련해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었지만 세미나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속기인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다양한 정보와 서로의 애로점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도 자주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갖고 있었다.

특히 지방 의회속기사의 직급개편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협회차원에서 법개정을 위해 내무부에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회원들의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관심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에 응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협회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회원님들의 애로점이나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소식지와 속기계를 통해 계속해서 연재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제184회 임시국회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하고, 민생법안 통과

국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제 184회국회(임시회)를 열어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과 관련한 법안 71개와 1개의 동의안을 처리했다.

자세한 일정을 보면 7월 1일 개회식에 이어 7월 2일부터 3일간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7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18일 동안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6개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열어 구체적인 질의 응답을 통해 국정 전반에 걸쳐 논의 했다.

이어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고,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안건처리를 하였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법률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발췌해 본 내용이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관세법 처벌제도를 개편하고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대폭 하향 조정한 개정 관세법(1996.12.30.)의 시행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이 법에 반영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안

고충민원을 포함한 민원사무처리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민의 행정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을 기함은 물론 지속적인 행정개선을 이룩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이다.

#### 여신전문금융법안

신용카드업, 시설투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은 수신기능이 없이 여신행위만을 영업으로 하는 유사한 성격의 금융업임에도 개별근거법에 의하여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야만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일법을 제정하여 이와 유사한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진입 및 영업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여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노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과 학력평가의 연계를 통해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육수요자에게 공신력있는 다양한 평가 정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국립교육평가원의 폐지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차질없이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다.

#### 선박직원법중 개정법률안

해상에서의 인명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더욱 확고히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에서 1995년 7월 개정, 채택한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95개정협약」 내용을 수용하여 선박직원의 해기능력 향상 및 해기사 수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자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 생물종과 생태계 등 자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개발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생태계 보전과 지역주민 생활의 질의 향상이 동시에 달성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진시켜 지역주민이 스스로 자연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 !! 아 하, 그렇구나 !!

### 일본 후생성 과장 미야모토 마사오(宮本政於)의 관청의 규칙 에서 국회답변 요령

- 前向的으로 - 민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약간 밝은 희망을 주기 위한 말.
- 親意 - 전망은 밝지 않지만,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을 때.
- 十分 - 시간을 충분히 벌고 싶다는 것.
- 노력한다 - 결과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
- 배려한다 - 그저 책상 위에 쌓아 두고만 있겠다는 것.
- 검토한다 - 검토하겠다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 주의깊게 살펴보겠다, 숙지하겠다 - 남에게 시키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
- 경청하겠습니다 - 듣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
- 신중하게 - 거의 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아주 얹어 버리지 않을 때 사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일어나게 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憲政》 6월호, 李聖宰議員 칼럼에서 인용)



## 속기사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한 제주도의의회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7년째로 접어들었다. 이제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정착되었다고 할 만큼 지방의 모습도 의회와 더불어 제자리를 찾아 가는 것 같다. 이러한 변모와 더불어 지난 7년간 지방의회의 기록업무는 얼마나 발전했으며 회의록 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주도의의회를 대상으로 살펴본다.

### 2개 담당관실과 6개 계 및 4개 전문위원실로 의회 구성

제주도의의회는 관공서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앞으로는 한라산이, 뒤로는 푸른 바다가 보이는 경관이 아주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의원 20명, 상임위원회 4개(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농수산재경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와 3개의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4·3특별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실은 총 4개가 있는데 내무위원회 회의실과 농수산재경위원회실만 별도 설치되어 있고, 내무위원회 회의실과 4·3특별위원회 회의실을 병행해 사용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실은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회의실을 사용하고 있다.

기구는 총무담당관실·의사담당관실 등 2개 담당관실과 총무계·경리계·공보계·의사계·의안계·기록계 등 6개 계 및 운영전문위원실·내무전문위원실·농수산재경전문위원실·관광건설전문위원실 등 4개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다.



▲ 제주도의의회 속기사들과 동료직원들

### 수기 변문 후 PC 입력

이들 기구 중 기록계는 기록계장과 6급 행정주사 및 6명의 속기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수산재경위원회와 4·3특별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이렇게 2개 위원회를 하나로 묶어 각 2인의 속기조를 편성해 30분씩 교대 근무하고 있다.

본회의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6인이 Rotation으로 일을 분담하고 있으며, 본회의의 경우 회의시간에 관계 없이 정회시에만 교대한다.

회의시에 기능직 8등급인 방송요원이 녹음을 해주고 있으며, 속기를 끝낸 속기사는 수기로 변문한 후 다시 PC 입력 작업을 하든지, Dictaphone이 아닌 카세트를 일일이 들어가며 PC 작업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대개 회의록의 신속한 발간을 위해 속기사가 Dictaphone을 이용하여 PC에 입력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도의 경우는 특이하다.

회의록 발간 절차는 먼저 속기사가 변문 후 한자를 입력한다든지 회의록에 게재할 사항 등 회의록 체계를 정리한 다음 행정주사와 기록계장에게 교열을 맡긴다.

교열된 원고는 인쇄소에서 유인 후 속기사가 다시 교정을 보고 한번 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완성된다.

이같은 작업을 거쳐 완성되는 회의록은 임시회시는 회의의 양이 적으므로 발간일수(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를 맞출 수 있으나 정기회시는 인원이나 장비 등을 고려해 볼 때 발간일수를 맞춘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 야간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인쇄된 회의록은 의원, 집행부, 국회, 각 시·도의의회, 제주도내 대학, 언론기관 등 회의록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발송된다.



### 지방의회 탐방

#### 개선돼야 할 지방의회 속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현재 지방의회 속기사는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기능직으로 보하고 있다.

의회의 회의록은 영구 보존됨으로써 그 중요성은 입증되고 있지만 기록을 수행하고 있는 속기사는 지방의 양대축의 하나인 지방의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은 그렇게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다.

제주도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K속기사는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집행부와 완전한 별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은 속기사를 집행부의 일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에서 오는 괴리감이 속기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친밀감이 덜한 것 같다"고 지방의회 속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한 데 이어 "집행부에서는 속기사를 의회직원으로 보는 한편 속기사에 대해 특별하다는 인식은 하면서도 실무에 대한 이해력은 부족해 타 기능직과의 차별성은 없다"고 피력했다.

흔히 속기사는 단지 속기만 한다는, 그래서 "비회기시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이는 속기사 1인이 속기록 번문과 교정, 그리고 회의록 배부 및 보관 등 회의 전반에 걸쳐 전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경우 속기사의 업무가 일반행정직의 업무와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 회의록 체제가 수시로 변경되는 등 많은 시행착오까지 겪고 있다.

또한, 관계법령에서는 속기사를 지방기능직 필기직렬로서 보하고 있어 "지방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사관으로서의 속기사에 대한 인식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타 기능직과 속기사를 연계시킴으로써 속기사 T/O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승진의 기회가 없다든지, 속기사 자리가 공석인 경우 타 기능직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경우가 생길 때도 있다.

제주도의회의 경우 속기사는 6명으로 9등급 3명, 10등급 3명이 있다.

현재 8등급 T/O 2자리와 9등급 T/O 4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사 3명은 9등급으로 2년을 경과하고 있고, 10등급 3명 중 2명은 1년 6개월, 1명은 2년 6개월이 지나 승진소요년수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본청의 타 기능직 때문에 승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 협회 및 속기사 자체의 부단한 노력 있어야

현대는 첨단산업화시대로 신속·정확한 정보가 요구된다.

속기사 자신이 이러한 현대의 물결을 타지 못한 채 자신의 전문성이라 생각하고 번문 작업에 있어 수기만 고집하고 매너리즘에 젖게 되면 언젠가는 시대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회의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회의록을 빨리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그 같은 욕구에 속기사가 부응하지 못한다면 영구히 기능직으로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회의록 작성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물론 속기사 증원도 중요하지만, 각자 속기 업무를 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절실히 요구된다.

협회는 이번에 지방의회속기사가 대거 협회 회원으로 가입된 만큼 1년에 한번씩 가지는 세미나 및 여타 기회를 통하여 회원의 자질 향상을 꾀하고 시대 흐름에 따른 국회 및 지방의회 속기사의 재교육에 더욱 많은 노력이 있기를 지방의회 속기사들은 기대하고 있다.

### 속기동

속기협회 회원부에서 이사장님의 처사를 올립니다  
전국의 속기인 여러분!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이사장 성천영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무주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께서 보여준 화합된 모습이 곧바로 협회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속기협회 홍보부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번 무주세미나를 통해 회원 여러분께서 보여준 뜨거운 관심과 애정은 본협회 홍보부에 큰 자극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부는 이번에 발간을 시작한 <협회소식지>를 통해서 전국 속기인의 활동사항과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홍보부로 보내 주십시오. 정성껏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속기동 접속 방법  
①통신프로그램 기동 ②'전화걸기기능'을 사용하여 '01410'으로 전화 ③'HITEL' 서비스 화면의 '원하는 번호/약부호/상품코드를 입력하세요'란에서 'TKNET'를 입력 ④이용자 번호에 자신의 ID와 비밀번호 입력 ⑤공지사항에서 편지를 읽고자 할 때는 'R'을 누르고 엔터를 쳐서 'TKNET' 초기화면이 나오면 'GO STNGP'라고 치면 '속기동'에 접속.

글 마 당

### 무주구천동에서



강수헌 회원

대한속기협회 제3차 학술세미나를 처음에 무주에서 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소 마음이 설레었다. 처음으로 1박을 하는 캠프여서 나는 진작에 가기로 마음을 잡고 있었다. 드디어 리조트에 도착하니 한솔동·두솔동·세솔동 등 아기이름도 아닌데 우리가 목을 곤도에 갖다 붙인 이름들이 우선 마음에 정다웠다. 이윽고 열린 세미나에서 제헌국회 때부터 계셨던 김진기 상

임고문님을 비롯한 여러 연로하신 선배님들의 참석은 엄숙함과 연륜과 기록에 대한 사명감을 더욱 느끼게 해주었다.

첫날 세미나장에서 나오니까 운치있게 비가 왔다. "아, 나를 환영하는 무주의 인사구나"라고 생각하니 껍 반가웠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녁식사 후 가진 여흥시간은 무척 즐거웠다. 선물로 나누어준 티셔츠로 다들 같이입자 연회장은 금방 푸른 물결로 뒤덮였다. 뭔가 하나된 것과 같은 일치감을 느낄 수 있었다. 회장님께서 출선하여 마이크를 잡고 선창하시는 가 하면 춤도 먼저 추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절로 흥이 났다. 국회의원회의 미녀삼총사 서명순·강은실·신연희 회원은 모처에 가서 특별 연습을 한 끝에 아주 멋진 광경을 연출해 냈다. 엄정화 못지 않은 노래 솜씨와 안무를 훌륭히 해낸 것이다. 회장님께서 탄복하셔서 지갑을 열어 상주는 일도 마다하지

### 바람을 잡은 내 손을 참 오랜만에 본다



배정순 회원

참 오래간만에 내 손을 본다.  
어릴 때 그 때는 하늘에 대고  
내 손의 굽선 은선들을 보며 승퍼했지.  
내 손의 흐릿한 생명선을 .....  
이제  
내 손은 능막한 오렌지색,  
손바닥엔 검푸른 잉크자욱.  
씻고 또 씻어  
하얗게 부드러운 여인네 손.  
직투처럼 매혹적인 실선들.  
손가락 마디가 다소 굵어도 깨끗한 손가락, 손톱.  
나의 손바닥 애달은 연모의 강물.

오호, 통재너!  
보라빛 구슬이 박힌 인도산 은반지 건지에,  
여유시인이 건네 준 상뜻한 꽃모양 은반지 명지에,  
역인곱 소녀가 준 수줍은 무지 은반지 오는 손 명지

오호, 통재너!!  
주님이 주신 GLORY GLORY 굽반지,  
내 가슴 속 은반지  
주님이 주신 GLORY GLORY 굽반지  
SILVER SILVER  
나는 승허 승허

나의 손 이제 놓여났다. 집착으로부터.  
자유의 바람을 쫓 나의  
조그맣 오렌지 빛 적네나는 오은 손,  
그의 몽땅 연필 나의 손에 쥐고  
집착의 손에서 자유의 손으로,  
그리고 바람의 손으로 하늘에 대고,  
참 오래간만에 내 손을 본다.

1997년 7월 2일 수요일 맑은 여름하늘  
15시 21분 27초에 주님께.....  
(이천시의회사무국)

글 마 당

않을 정도로...

여흥시간은 내내 즐거웠다. 사업부장을 맡은 김덕진 회원의 곱사등이 춤하며 맨발의 청춘을 부를 때는 장내가 과연 압권이 있다. 회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제주도에 오신 속기사분들을 많이 환영해 주시고 여비까지 두둑히 주시면서 격려에 격려를 아끼시지 않았다.

두술동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이른 아침에 나는 고석광 선배와 함께 산에 올랐다. 거의 정상에 다달아 뒤를 잠시 돌아다보니 수려한 산들과 무주리조트의 멋진 광경이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 두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 온 보람을 만끽하기 위해서 일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순간 자연을 노래하며 찬양시를 읊기 시작했다.

"추풍령 ..."에서 시작된 우리의 아침노래마당은 "오솔레미오"를 거쳐 "긴밤 지새우고" "아침이슬로 끝나기까지 산들과 무주리조트를 단원삼아 작은 불펜으로 지휘도 해 가면서 신바람나

는 작은 음악회를 가지게 되면서부터 서편제가 부럽지 않았다.

나는 언제 이런 일이 다시 있으랴 생각하면서 마치 길에서 황금을 주운 어린아이처럼 마냥 즐거워하면서 한동안 덕유산이 배푼 음악의 향연에 취하여 있었다.

그날 오전세미나에서 성천영 이사장님의 "30년 평생을 속기계에 몸담고 있는 동안 이번처럼 자랑스러운 ..."이란 대목에서 목메이는 음성을 듣고 나도 약간 가슴이 뭉클해 왔다. 단체사진 촬영 장소는 너무나도 멋진 폴리스키 풀밭이었다.

그 넓고 푸른 곳에서는 우리를 단번에 한 카메라로 다 잡을 수 있을 정도였다.

무주리조트에서 펼쳐진 우리들의 우정은 깊은 연대감과 동료의식과 속기계에 대한 애정을 재확인하면서 이별을 아쉬워하며 일단 손수건을 흔들었다.

아디오스 아바다!

(국회사무처 속기1과)

## 하나임을 확인했던 세미나를 뒤로 하며



이 화 경 회원

이 부시도록 맑은 날에 이런 모임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잠을 설렜 나는 가쁜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국회에 도착하여 꼭 막힌 도로를 지나 전용차선을 달리는 순간 동지들의 얼굴이 하나 들쭉 스쳐갔다. 바로 이날이 우리들의 날이라는 생각은 비단 나 혼자만의 것은 아니었으리라.

조금 늦게 도착하였으나 여름의 싱그러움 풀내음과 초목의 산들은 그만큼 우리를 더 반겨주는 듯했다.

사회자의 소개로 회장님의 멋드러진 인사말씀이 시작되었고, 드디어 우리들의 세미나는 막을 열게 되었다.

속기로 많은 슬픔과 좌절, 그리고 그 이상의 기쁨과 행복을 느껴온 나는 이 순간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굳이 표현하자면 살아있다는 느낌이랄까.

서우선 연수부장님의 제1주제발표 시간에는 주역을 풀어 자기길을 찾는 방향을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는 종적인 의미를 지양하고 모든 것을 변화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

오후 늦게 시작된 레크레이션 시간.

왕성한 젊은 열기를 지니신 회장님을 비롯해 누구랄 것도 없

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동안의 힘들었던 생활은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준 자리였다.

분위기를 한층 돋워준 밤비 속에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날 줄 모르고, 그렇게 밤은 깊어갔다.

드디어 둘째날.

제2주제발표를 해 주신 염덕훈 이사님은 지금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는 큰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송효곤 회원님의 제3주제발표는 지방의회에 속한 나의 입장에서는 한층 절실한 대목들이 많았다.

각자 주어진 환경은 다 똑 같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는 한 목소리로 외쳤던 속기사의 신조.

속기에 대한 열정을 가진 동지들과 같이한 1박2일의 여정은 그냥 흘러버릴 것만은 결코 아니었다.

속기를 한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더없이 가슴벅찬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로 뭉치게 해주었고,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반성까지 하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회장님을 필두로 이번 세미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협회 관계자님들께 마음으로부터의 무한한 감사를 전하고자 한다.

(수원시의회 사무국)

회원동정

퇴직·수고하셨습니다

- 최석모(행정위원회 전문위원) / 명예 퇴직(97.6.30)
- 채강희(권수창의원 보좌관) / 의원 사망으로 면직(97.7.1)

임명·수고하십시오

- 이윤화 / 정호선의원 보좌관(97.7.3)

전보·수고하셨습니다 → 반갑습니다

- 강종원(부이사관) / 윤리특별위원회 → 감사관(97.8.2)
- 황인하(부이사관)/의정연수원 → 윤리특별위원회 입법심사관(97.8.2)

공로연수·잘 다녀오십시오

- 신세화(특별위원회 전문위원) (97.8.2)
- 전해성(통상산업위원회 전문위원) (97.8.2)

승진·축하합니다

- 김기영(감사관실) / 부이사관(감사관) → 이사관(내무위원회 전문위원)(97. 9. 1)
- 송기철(통신과학기술위원회) / 부이사관(입법심사관) → 이사관(통신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97. 8. 2)

결혼·행복하세요

- 오명신(부산해운대구의회) / (97. 6. 20)
- 김태순(대전대덕구의회) / (97. 9. 21)
- 정미아(부산기장군의회) / (97. 9. 27)
- 손정숙(제주도의회) / (97. 10. 5)
- 양지현(부산기장군의회) / (97. 11. 9)

전직·발전을 기원합니다

- 송재용(대전광역시의회) → 임업직(푸른학습원)(97. 8)

표창·축하합니다

- 김미란(부산 수영구의회) / 속기록 전산화작업에 따른 예산절감안 제안으로 부산광역시장상 수상(97. 6)
- 박영미(부산 수영구의회) / 구청직원 워드경진대회 1등(97. 7)

해외출장·수고하셨습니다

- 김동구(부산 남구의회) / 일본 가고시마의회 국제회의 의장수행(97. 8. 25~8. 29)

알림

천리안 가입 독려

안녕하세요? 속기동지기입니다.  
현재 대한속기협회와의 협의 및 지원 하에 천리안에 '속기동호회'를 만들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속기동 회원들은 천

리안 ID가 없으시면 빠른 시일내에 가입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ID를 알려주 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이텔의 '속기동'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속기동'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합니다.

(연락처 : 대구중구의회 의회의사국 윤태원, 053-421-8258)

한국속기50년사 편찬자료 협조요청

협회는 금년들어 <한국속기50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 권용태)를 발족하고, 우리나라에서 속기가 처음 창안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회정치사와 함께 해온 한국속기50년사의 흐름을 정리, 발간하는 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고가 될 자료(보도자료, 도서, 사진, 테이프 등)를 가지고 계신 회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자료는 발간작업이 끝난 직후 꼭 반환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사무처 속기1과 ☎150-701 박정호, 간찬기 ☎(02) 788-2372, 2472)

바로 잡습니다

前호(제1호) 4면 池大變 회장 약력 중 '광주고'를 '광주일고'로  
12면 梁源龍 회원 전화번호 '(02)902-8101'을 '(02)902-8191'로 바로 잡습니다.

투고를 기다립니다

- 회원 동정란  
승진, 인사, 결혼, 개업, 이전, 출판 등
- 지방의회 소식  
각 지방의회 소식 (정기회, 임시회 등 회의 관련)
- 컴퓨터 관련란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각종 정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윈도우95 활용, 한글 3.0의 실무적용 프로그램 소개, PC통신 '속기방'의 시삽 개설, 기타 지방네트의 소개 및 활용
- 동호인란  
회원들의 다양한 취미활동이나 모임 소개, 모임이나 결성
- 버락시장  
회원상호간에 필요한 물건이나 쓰지 않는 물건을 사고 팔거나 기증하는 코너
- 회원참여마당  
시, 수필, 시조, 콩트, 제언 등
- ◆ 기 간 : 연중 계속
- ◆ 보내실 곳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사무처 속기과내 대한속기협회 홍보부
- ◆ F A X : (02)788-3386~7 (수신자 : 서현숙)
- 기 자 : 장미경, 서현숙, 이시정, 정 숙